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시소이스 대수사

마태오 제2주일

12사도 연관 축일

제1조,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사도 찬양송 / 84, B 262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고린토 전 4, 9-16 / 봉독서 202
- 복음경: 마태오 9, 36, 10, 1-8 /
마태오 제3주간 월요일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시소이스 대수사

겸손은 수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첫 번째의 덕입니다. 교회는 7월 6일을 겸손의 표본이 되신 성 시소이스 수도사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성 시소이스 수도사에게 “수사님, 저는 항상 하느님의 눈길 아래에 있다고 느낍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당신의 형제들보다 자신이 아래에 있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눈길 아래 있다고

느낄 때도, 각 사람은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 앞에 있음을 종종 잊곤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겸손하지만, 과연 형제들을 향해서도 겸손합니까?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되는 덕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덕의 기반 위에 다른 모든 덕을 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과 ‘열등감’은 구별해야 합니다. 겸손은 깊은 감정입니다. 비록 겸손의 덕을 완성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의 덕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너의 삶을 살아라!”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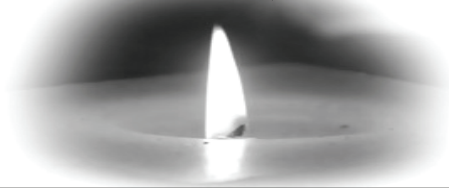
“너는 아직 어리다. 결혼하는 것을 서둘지 마라. 어려서 결혼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경험을 더 쌓아라. 급하게 서둘러서 어떤 관계에 갇히지 마라. 먼저 너의 삶을 살아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아라. 자신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억눌린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급하게 서둘지 마라. 지금 잘 보내고, 나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너의 나머지 삶을 함께 정착해서 살아라. 지금부터 결혼을 너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무로 가지고 있지 마라. 억지로 찾지 말고, 나중에 네가 만족할 수 있도록 먼저 너의 삶을 살찌워서 채워라.”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사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저 쾌락과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용할까 하는 방법만 가르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책임감도 없고 아무런 행동이나 노력도 없이 그저 이기심을 좇으며 살게 합니다. 아이들을 환상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살고 나중에 ‘더 성숙해지면’ 사랑의 관계를 맺을 만한 적절한 시기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번도 사랑하려 노력하지 않고,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 존재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겸손, 인내, 희생, 책임감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현대적이라는 부모들 대다수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까지도 허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거룩한 성찬예배에 대한 교훈

▷ ‘필로칼리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찬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필로칼리아에 실려있다.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힘을 지닌 한 성인이 귀신에 홀린 처녀들 속에서 격렬히 소리치며 살아가는 악마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자 악한 영들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당신들 목에 두르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당신들(의 몸과 영혼)을 씻은 것이고, 셋째는 친교 속에서 당신들이 함께 한 것이다.”

이어서 성인은 물었다. “이 세 가지 것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다시 악한 영들이 대답하였다. “만일 거룩한 친교의 성찬예배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눈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해칠 수가 없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것이다. 곧, 십자가와 세례와 거룩한 친교제(성찬예배)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것 가운데서도 거룩한 친교의 성찬예배가 으뜸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거룩한 친교를 나눈 제단에서 물리나 불을 내뿜는 사자처럼 나아가자. 그리하여 악마가 두려워 벌벌 떨게 하면서 ……”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여름 수련회

올해도 여름 수련회(English Camp)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신데즈모스 수련회는 7월 26일(금)~28일(일), 초·중등부 수련회는 7월 29일(월)~8월 4일(일), 고등부 수련회는 8월 4일(일)~8월 6일(화)에 있을 예정입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과 영어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인 수련회에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오는 14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초·중등부 15만 원, 고등부 5만 원, 신데즈모스 5만 원입니다.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캠페인 참여

지난 6월 24일~7월 6일까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요한 박인곤 보제는 NCKK에서 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 콘스탄티노플, 그리스로 출국하였습니다. 이번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캠페인은 정교회 국가에서 진행하기로 결

정하여 세계총대주교청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그리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정교회에 대한 많은 부분을 체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기도가 현실화되길 기원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화 전시회

지난 5월 20일 소존 야누디스 교수의 지도로 시작된 성화 수업이 6월 22일 하느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작한 성화를 전시하는 전시회가 지난 주일 성찬예배 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당에서 6월 29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화 수업과 전시회를 마련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느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여름 수련회

올해 여름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초·중·고등부: 7월 26일(금)~28일(일)

· 신데즈모스: 8월 15일(목)~17일(토)

영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각각 5만 원입니다.

주간 예식

· 7월 1일(월) >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